

제426회 국회  
(임시회)

#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6월26일(목)

장 소 국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 국방부 소관
  - 방위사업청 소관

## 상정된 안건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 1
  - 국방부 소관
  - 방위사업청 소관

(15시33분 개의)

○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 국방부 소관
- 방위사업청 소관

○위원장 성일종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임종득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임종득 위원입니다.

총 8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국방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깊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3개 세부사업에서 27억 6200만 원을 감액하고 3개 세부사업에서 1010억 87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신요금, 정보보호 사업은 국군방첩사령부 부대원

에게 지급되는 안보폰 수량이 과도하다는 점이 지적됨에 따라 지급 규모를 조정하여 예산 23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은 대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식 사업은 민간위탁 급식에 대한 장병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식재료비 부족으로 인해 내실 있는 급식 추진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위탁 급식 사업보조비 등 예산 489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대운영지원 사업은 경찰·소방 등 타 직군에 비해 낮은 수준인 당직근무비 인상 소요분 등 예산 393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사청 소관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인프라 보강 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조건부 타당성이 인정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와 사업 착수가 시급한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사업에 대해 예산 8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미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저는 소위 심사 시에 안보폰, 이른바 비화폰에 대해서 방첩사하고 또 군수사기관에 지급하기로 한 것을 깎아 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한 90억 가량은 예산이 남아 있는 겁니다.

제가 국감 때 지적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실전에서는 스마트폰 이런 것은 오히려 감청이 쉽기 때문에 실전에서 실제 전투가 벌어지거나 하면 무전기 장비가 오히려 시급히 보완이 돼야 됩니다. 제가 국감에서 지적했던 건 일부 장비는 이미 월남전 때 쓰던 것을 아직도 쓰고 있고 실제 이게 안 되니까 스마트폰으로 통신도 하고 한다는데, 전투가 벌어지면 이게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90억 이것도 예산이 시정되기를 바라고요. 실제 전투를 대비한 무전기 같은 것 이런 걸 실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이 아니라 다음에 본예산 짤 때 오늘 지적해 드리는 걸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또 다른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차관님, 이 안보폰에 대해서 실제로 평상시에 우리가 비밀과 관련된 내용을 지휘관이든 참모관이든 부대 간에 교신할 때 사실 상당한 부분을 이야기할 부분들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안보폰으로 통화하도록 만든 거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전시에는 어차피 기지국이 제한받기 때문에 결국은 무전을 써야 되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전시에는 전시의 무선 체계를 사용합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전시에는 전시통신체계를 쓰는 거고 평시에 그래도 보안에 저촉되지 않고 군 기밀과 관련된 내용들을 통화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서 안보폰 쓰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맞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라 군사적인 목적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군인들이 평시에도 많은 대화 중에 실제로 보안과 관련된 내용을 좀 용이하게 교신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시각으로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의 세출예산 중에 급식비에 대한 예산인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지금 증액을 한 거예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금 원래 2000원 정도의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고요. 나머지 기간 동안에, 올해 내에 추경을 집행해야 되니까 그것 계산했을 때 나온 게 81억분입니다. 저희가 최초에 1만 5000원이라는 돈을 책정하고 요구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현재 1만 3000원에 대한 민간위탁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은 부대비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식자재를 사는 것은 한 1만 원 정도 내외가 되고 3000원은 부수비용으로 들어가니까 장병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급식이 적다는 것이 사실 나타났고요.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0원 올린 1만 5000원을 요구했는데 기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소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반영을 했고 예결위 가서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두 가지 아닙니까? 일단 군이 취사하고 있는 단위에 대한 것은 지원이 없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것은 이게 아니고 민간위탁에.....

○**한기호 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것만 2000원을 추가 반영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 때문에?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또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강선영 위원** 예산 관련한 건 아닌데.....

○**위원장 성일종** 차관님,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얼마 전에 전쟁을 할 때 옛날 우리가 썼던 삐삐 같은 것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하마스의 상당한 피해와 이렇게 사람들이 전쟁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것 봤고 사람도 죽은 게 있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지금 우리 군이 5G를 안 쓸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AI로 안 잘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그런 통신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삐삐를 썼던 것은 일반 폰에 대한 추적이나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쓴 것에 대해서 역공작을 모사드가 들어간 거잖아요. 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통신이. 그런데 지금 추미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만약에 그런 걸로 사용한다 그러면 큰 일이잖아요. 군이 그런 걸로 사용하지 않고 작전상 필요하거나 보안상 필요하다고 하는 걸 왜 설명을 소홀히 하시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 부분이 아까 논의될 때 충분히 설명이 됐고, 저희가 작전상으로 필요한 제대들이 했던 것은 그대로 반영을 하고, 사실 방첩사 문제가 연계돼서 나와서 그 부분은 저희가 분배계획이나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히 따져서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예산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삭감을 하고요, 나머지 대대급의 작전요원들한테 분배되는 것들은 정상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아까 소위에서 논의가 다 됐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하여튼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군의 통신 체계가 도청당하지 않고 또 보안상 아주 각별히 유념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소위에서 통과한 것은 그대로 통과하더라도 향후에 이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한 분 한 분한테 각별히 설명을 드리시고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뒤에 이것 담당 실무진이 누구세요?

이 실장님이 이것 다 담당……

○**국방부기획조정실장 이영빈** 기조실하고 정보화기획관실이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벌써 6월이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또 빠진 부분을 더 추가해서 가야 될 텐데 이게 8월 말이면 정부로 또 넘어오지 않겠어요? 잘 챙기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선영 위원** 저 잠깐만 2분만 시간 주십시오.

○**위원장 성일종**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강선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차관님, 어제 전체회의에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제 많은 위원님들이 병사들 진급 제도 관련한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장관대행께서 이걸 재검토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제가 저희 의원실에도 계속 문의가 많이 와서 이걸 각 군에 확인을 해 보니까 해군·공군·해병대는 군 내 각기 공통된 병 진급심사 표준점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육군이 문제 되는 건 표준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저도 병사들이 징병을 의무복무로 와 가지고 충분히 보상을 받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병사들을 통제할 수단이 없고 열차려도 없고 그다음에 저희권이 확립된다고 보지 않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진급 제도라는, 군이라는 건 결국 전투력이 중요한데 병사들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

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형화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자동진급 제도를 없애 보니까 불만이 많으니, 해군·공군·해병대는 있는데, 물론 해병대는 특수한 직군이라 하더라도 행정병이든 전투병이든 저는 기본적인 병 전투 기본에 대해서는 표준적인 국방부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동진급 제도를 없애겠다고 해서, 그냥 전투력 측정에 불합격한 민원이 두 번 연결되면 두 달 후에 자동으로 진급하는 그런 전투력이 떨어지는 부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의 사기도 높이고 그렇지만 더불어서 군의 전투력도 수준 유지를 해 줘야 되는 정책을 해 주시고. 많은 분들의 논의가 있고 민원이 있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군은 군이다, 군은 강한 전투력을 갖고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부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검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을 병 진급 제도에 정확하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반영하도록 행정실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어서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항목과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정부 측은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위원장 성일종 정부 측으로부터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 및 자구 정리 등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84조 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후 예결위에서 이와 관련된 동의를 우리 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촉박한 국회 심사 일정 등을 감안해서 국회법 제84조 5항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호 국방부장관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아까 소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감액의견을 주셨지만 정부 측이 제기한 의견을 받아 주셔서 그 의견을 철회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증액의견안 주신 것에 대해서 국방부가 나름대로의 논리와 근거들을 최대한 잘 마련해서 예결위 가서 그것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정부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시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저희도 방위사업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산 심의 간에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업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방위력개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군 전력 증강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이 됐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

○**출석 위원(11인)**

장선영 김병주 백선희 부승찬 성일종 윤상현 임종득 추미애 한기호 혀영  
황명선

○**출장 위원(1인)**

강대식

○**첨가 위원(3인)**

김민석 안규백 황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전문위원 류승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기획조정실장 이영빈

인사복지실장 김수삼

자원관리실장직무대리 이갑수

기획관리관 김경욱

계획예산관 신태복

인사기획관직무대리 김선범

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정책기획관 윤봉희

보건복지관 김은성

군인권개선추진단장직무대리 정기현

지능정보화정책관직무대리 문성훈

육군본부

기획 관리참모부장 오혁재

해군본부

기획 관리참모부장 김태훈

공군본부

기획 관리참모부장 이태규

해병대사령부

전력기획실장 박승일

방위사업청

청장 석종건

기획조정관 홍미루

국방기술보호국장 한경수

재정담당관 이민휴